



당신의 여행이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

9월 27일 세계관광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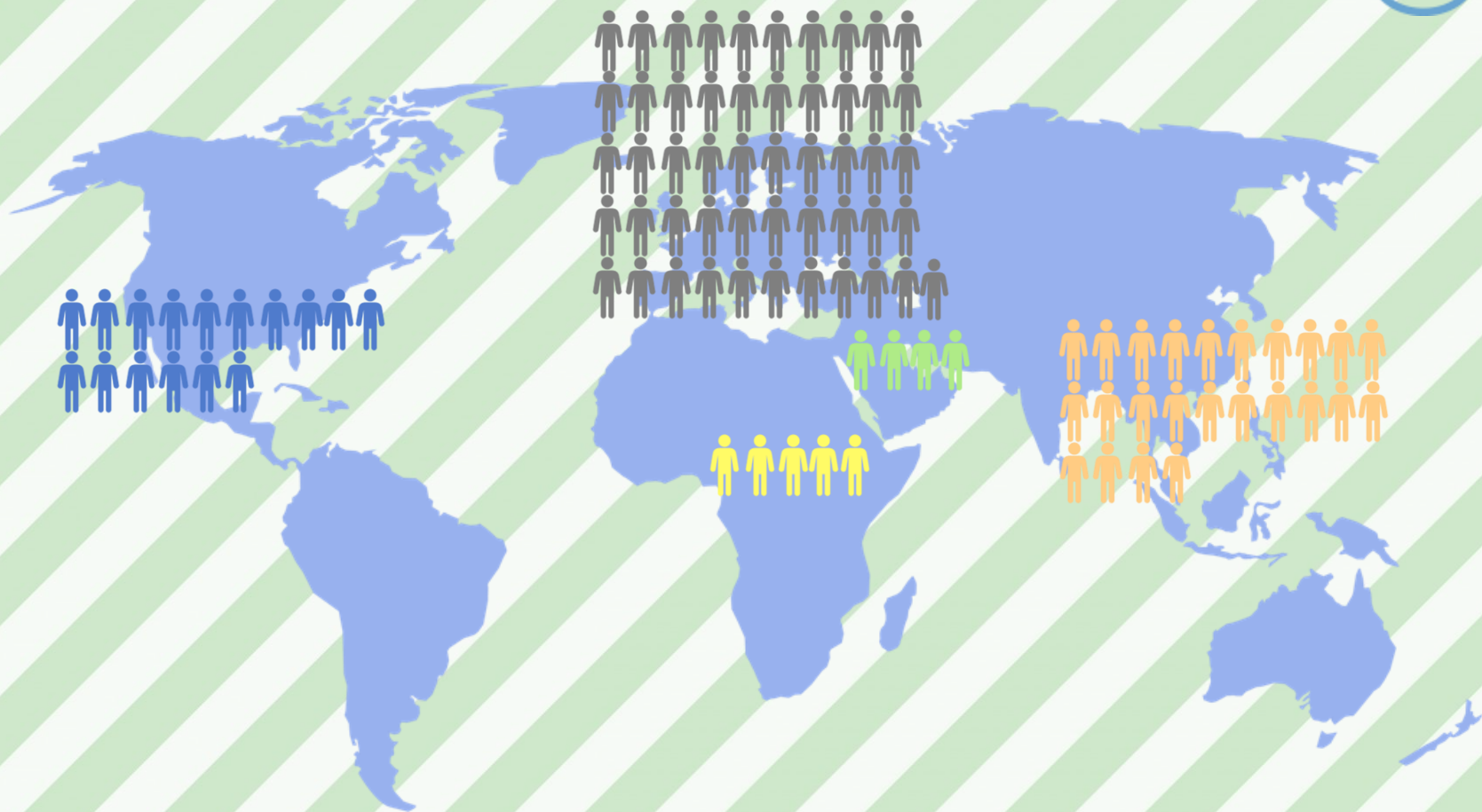
**죽기 전,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잡코리아에서 대한민국 성인 남녀
1,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위는 '여행'이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여행.

**이 때문에 관광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져만 가는 관광 산업,
이대로 관망은 걸까요?**

**세계 관광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여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 100명의 여행자가 있다면
51명은 유럽을, 24명은 아시아를
또 다른 16명은 아메리카를 여행합니다.
나머지 9명 중 5명은 아프리카에,
4명은 중동에 있습니다.**

1950년에 비해 관광객은 **47배**,
수익은 **630배**나 증가했습니다.

2015년 관광 통계

관광객 수



11억 8,600만 명

관광 수익



1조 2,600억 달러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매년 1.9회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1인당 해외에서 지출하는 비용도 전 세계 6위에 달할 정도입니다.

1위		호주	\$978
2위		영국	\$972
3위		독일	\$946
4위		캐나다	\$820
5위		프랑스	\$598
6위		대한민국	\$493
7위		이탈리아	\$402
8위		미국	\$351
9위		러시아	\$239
10위		중국	\$213

그렇다면 우리의 여행이 행복한 만큼,
여행지 역시 행복해졌을까요?

당신의 여행이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몰디브 여행 보이콧에 동참해 주세요”

2008년, 몰디브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독재 정치를 펼쳐 온 마우문 압둘 가유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무함마드 나시드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선출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3년,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가유프 대통령의 이복동생인 압둘라 야민을 대통령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2015년, 나시드 전 대통령은 반테러법 혐의로 13년 형을 받고 투옥됩니다.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며 반발했고, 몰디브 인권 활동가들은 몰디브 여행을 자제해 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신혼여행지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지상 낙원 몰디브,
그 덕분에 관광 산업은

GDP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권 활동가들은 여행객들이
지불 하는 이 돈이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데
사용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여행객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이유로
몰디브 여행 보이콧에 들어간다면,
조금이나마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에서 말입니다.**



여행은 동물의 삶도 바꿔 놓았습니다

2016년,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서 관광객을 등에 태우고 가던 코끼리 '삼보'가 과로와 탈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광객의 재미를 위한 코끼리 트래킹. 하지만 사람이 코끼리 등에 오르려면 코끼리들은 잔혹한 인식을 치러야만 합니다.



어미와 강제로 분리된 새끼 코끼리는
일주일 동안 좁은 우리에 갇혀 네 발과
몸통이 묶인 채, 계속 매질을 당합니다.
'파잔 의식'으로 불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코끼리는 야생의 본성을 잃고
사람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세계동물보호기구의 대표인 마이클 베이커씨는 말합니다.

“코끼리 등에 오르기 위해서는
새끼 코끼리를 쇠줄로 묶고, 때려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끔찍한 과정을
겪는 것을 원치 않겠죠.
코끼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목숨을 위협 받는 건, 코끼리만이 아닙니다.
관광을 위해 전 세계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코끼리의 25%인 16,000마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 중 75%는 관광객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만 5,000마리의 호랑이가 잡혀 있습니다.
야생에는 겨우 3,200마리만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600마리의 큰돌고래가 관광객을 위해
잡혀 있습니다.**

**여행으로 누군가는 자신들의
문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Photo!”

**관광객들을 실은 차가 마을에 멈추면,
15센티미터 정도 되는 동그란 접토판을
아랫입술에 착용한 후,
사진을 찍어달라고 외칩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왔던 에티오피아의 무르시 족입니다.**

**여행사들의 관광 상품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묻곤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지 저들의 즐거움을 위해서인가?”**

-코모르 아 코라, 무르시 족-



**관광으로 정체성을 잃어가는 부족은
무르시 족만이 아닙니다.**

**나미비아의 힙바 족,
인도 안다만 섬의 자라와 족,
태국으로 도망 온 미얀마의 카렌 족은
상품으로 전락한 자신들의 문화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하나, 해치지 않는 여행을 해주세요.

**누군가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여행을 꿈꾸신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모두에게 이로운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 공정여행 여행사
트래블러스 맵 (travelersmap.co.kr)

해외 공정여행 사이트
책임 여행 (responsibletravel.com)
투어리즘 컨선 책임 여행 (tourismconcern.org.uk)



돌, 평화를 전하는 여행, 피스 보트

**1983년, 일본 정부가 세계 2차 대전
전후에 대한 역사 교과서를 검열하기
시작하자, 이에 분노한 일본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이 학생들은 피스보트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를 돌면서 과거를 반성하고,
평화를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피스보트는
전 세계 일주 프로그램을 개발해
평화를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공정여행 이야기를 담은
도서<희망을 여행하라>는 말합니다.

“여행은 ‘떠남’이 아니라 ‘만남’이며,
‘어디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이며,
‘소비’가 아니라 ‘관계’다”

당신의 여행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세계시민교육 보니따

© Bon Idea To Action, Bonita
www.ibonita.org

보니따 소식이 궁금하다면
보니따 공식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facebook.com/ibonita2016